

### 광주 서구,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가맹점 14개소 추가지정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  
치매가족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역할

광주 서구가 2021년 1분기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1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은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기업, 기관, 학교, 대학, 도서관, 개인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 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은 거리를 배회하는 치매어르신을 발견 시 임시 보호하거나 신속하게 신고하고,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치매예방관리 사업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치매가족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체와 가맹점은

친절한 약국, 광주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굿데이케어센터 등 14개소로, 현재 서구에 위치한 치매안심가맹점은 총 41개소로 늘었다. 치매극복선도단체(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 및 치매안심가맹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350-4769) 서대석 서구청장은 “치매극복을 위해 서구에 다양한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가 치매환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당신의 관심이 행복한 보성을 만듭니다”

보성군 별교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개

보성군 별교읍행정복지센터와 별교읍희망드림협의회는 19일 별교역 광장 등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에는 별교읍희망드림협의회(선남규, 조효의 공동위원장)와 별교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봉사자들은 5일시장을 돌며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선남규 별교읍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서는 일회용 쓰레기 감소를 위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전달하며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도 병행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광주 광산구, '치매걱정 없는 행복광산 프로젝트' 눈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및 파트너 양성 교육

광주 광산구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치매조기검진, 치매파트너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걱정 없는 행복광산 만들기' 프로젝트로 건강한 노년을 지원한다. 광주시 광산구치매안심센터는 대한노인회광산구지회, 한마음금고복지센터, 동그라미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16

일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12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치매예방 및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치매파트너는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치매동반자'다. 양성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은 지역주

민과 동 연배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등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치매는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다”며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 여주시 쌍봉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건강교육 시작'

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교육 12월까지 실시

여주시 쌍봉동주민센터(동장 조용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4월 13일부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24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고령사회에 발맞춰 올해 교육은 노인들의 구강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

석자 모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한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연 쌍봉동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



면 좋겠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